

종강예배



서울대 기독교 인연합 종강예배가 5월 29일 수요일 저녁 5시 반에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는 제임스 스미스 (James K. A. Smith)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연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예배 후에는 예술계 식당에서 단체별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전 종강예배는 Veritas Lecture® 형태로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간사칼럼

익숙한 것들이 다르게 보일 때



4월이라 온 캠퍼스에 꽃들이 가득합니다. 캠퍼스에 벚꽃이 가득해지면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온다는 다소 잔인한 말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봄이 좋

고 꽃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오랜만에 벚꽃골로 갔습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어우러진 꽃들과 함께, 돌아나는 잔디가 마음을 싱그럽게 해줍니다. 그 잔디밭을 걷다가 불현 듯 몇 년 전 해외 선교사님이 잠시 입국했을 때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은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였던 곳의 잔디밭 색깔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넌센스 퀴즈같이 물어온 말에 “성경에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을 하며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무리들이 모였던 곳이 푸른 잔디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익숙한 부분이라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흐름과 메시지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사소한 내용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익숙함에 젖어서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저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의 캠퍼스. 이곳의 익숙한 벚꽃도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도 새로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서울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캠퍼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다른 많은 캠퍼스가 있지만,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선명한 이유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다가온 것이 벚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때가 생각나서 기숙사삼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범대를 지나 기숙사 삼거리에서 다다르면 왼쪽 편으로 작은 산이 나오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이 보입니다. 이 산 이름이 오분대(봉)입니다. 걸어서 5분이면 올라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파른 언덕길이지만 한데 실제로 5분만 걸으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다녀간 지 어느새 6~7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정상에는 전에 없던 작은 정자가 지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에는 큰 바위들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기숙사가 한 눈에 다 들어오고, 다른 반대쪽으로 가면 정문부터해서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캠퍼스가 한 눈에 들어오는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15년 전에도 저는 이곳을 소개 받아 몇 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봄 날 오분대에 올라 캠퍼스가 한 눈에 보이는 그 바위에 앉아 제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질문 섞인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분대 정상에는 야생 벚꽃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꽃이 만개했을 때인데,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불현듯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눈물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물 같은 꽃잎을 맞으며, 이곳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제 안에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퍼스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또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던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어떤 시선이 아니라, 이곳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

리고 계시는구나!’ 그 정상에서 마주한 흩날리는 벚꽃이 저의 마음에 떨어졌고,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몇 년 동안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마치고 이곳에 함께 올라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지금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품고 다시금 캠퍼스를 위해 기도를 하고, 오분대를 내려와 자하연을 거쳐 공대 쪽 폭포까지 잠시 걸어보았습니다. 많이 익숙한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곳들이 어느새 저의 생각과 영적인 감각들을 무디게 하고 있음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익숙하여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잘 알고 있다고 지나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물이 익숙하고 이곳의 사람들이 익숙해졌지만, 정작 사람들의 속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해지면 아는 것보다 놓치는 것들이 더 많음을 생각해 봅니다.



2019년 봄날의 벚꽃이 저를 익숙함에서 새로움으로 인도합니다. 저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주님! 제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익숙한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잘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다시금 이곳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의 삶의 스토리가 보이게 하시고,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를 향한 당신의 눈물을 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하소서.’ 익숙한 것들이 다르게 보일 때, 비로소 내 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가늘게 떨어지는 공대 폭포의 물줄기를 뒤로 한 채, 오분대 정상에 아직 만개하지 않은 벚꽃을 보러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라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장정완 간사(CMI)

편집인의 글

안녕하세요?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해 2019년 1 학기에 있었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 진나빛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캠퍼스를 섬겨 주신 CMI 장정완 간사님의 칼럼으로 시작합니다(1면). 이후 캠퍼스에서 학생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귀한 글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2-3, 6-7면). 이번 호의 특별 지면은 ‘기독교대학원의 신앙과 학문’입니다(4-5면). 특별히 인문사회계열, 과학기술계열, 예체능계열에 계신 분들의 글을 고루 신고자 하였습니다. 대학원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에 힘쓰고자 하는 후배들이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면에는 ‘신입생과 기독교수와의 만남’, 그리고 2019년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 등의 행사 사진을 담아보았습니다. 특히 ‘신입생과 기독교수와의 만남’은 2013년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조찬기도회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 올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전의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강예배를 맞이하며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캠퍼스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1학기 즈음 시흥캠퍼스 문제로 본부 앞 시위가 계속될 때, 한 자매가 ‘지금 학우들이 밖에 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옆 학생회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 때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여전히 캠퍼스에는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합으로 준비한 예배를 마땅히,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도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간사칼럼 ... 장정완 간사
편집인의 글
- 2면 서기연대표 취임사 ... 유예나
중앙위원의 글 ... 남명현
- 3면 단기선교 간증글 ... 최규연
독자기고란
- 4면 대학원생 특별기사 ... 조지혜
대학원생 특별기사 ... 윤현준
- 5면 대학원생 특별기사 ... 권슬기
대학원생 특별기사 ... 김성한
- 6면 기교협 소개글 ... 홍종인 교수
조찬기도회 소식
- 7면 음기연 소개글 ... 박소영
자전기연 소개글 ... 홍영서
- 8면 2019-1 이모저모

서기연 대표 취임사

서기연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부탁해 서기연 :)



안녕하세요! 2019년도 서기연 대표로 섬기게 된 유예나(아동가족 14)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서기연을 통해 서울대 캠퍼스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저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하

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예혼(생활대 기독인 연합) 대표를 하면서 서기연 대의원회의에 처음 나갔던 것이 저와 서기연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서기연이 왜 있는지, 대의원회의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연합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대 캠퍼스에서 부흥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차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과 단대기연, 과기도모임이 서기연이라는 연합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서기연 중앙위원으로 함께하면서 서울대 안에 부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저도 함께 서울대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캠퍼스와 그 영혼들은 향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가졌던 회의적인 마음들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럽기도 했지만 도전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그 과정에서 저의 신앙의 성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위원으로 섬기며 참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표의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 양태명 전 대표님과 전 중앙위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서기연을 향한 두 가지 소망을 주셔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 캠퍼스 영혼에 대한 소망입니다. 대표라는 직책을 두고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부담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캠퍼스와 이곳에 있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스스로 이런 소망을 갖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어렵지만,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라도 캠퍼스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기에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12:9]

특별히 서기연을 섬기는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작아지고 연약함에 익숙해질수록 주님이 더 드러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서기연이 연약한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서기연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올해에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서기연의 중앙위원단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자훈(건축공학 14), 이은진(전기 15), 유인비(경영 15), 김태준(산업공학 17), 남명현(종교 18) 이렇게 5명의 중앙위원 친구들이 서기연의 살림살이를 맡아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저와 중앙위원단이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연합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이 지면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중앙위원단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해주세요. 부흥이 우리 중앙위원단의 삶에서 일어나고 나아가 각 지체들과 단체 내부에서 시작되어 서기연 연합체와 이 서울대 캠퍼스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예나(아동가족 14)

중앙위원의 글

사모하는 나의 사랑 서기연에게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대기독인연합(이하 서기연) 중앙위원과 CCC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종교학과 18학번 남명현입니다. 저는 평소 CCC 그리고 인문대기독인 연합과 함께하고, 겨울 방학 때 서기연 '새내기 신앙 OT'에 케어팀과 찬양팀(드림)으로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소연 간사님과 유예나 서기연 대표님으로부터 중앙위원직 제의를 받게 되었고, 2019-1학기부터 서기연 중앙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제가 서기연 중앙위원에 지원한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창조 이후로 세상은 더 타락해가고, 우리들의 죄악은 창세부터 겹겹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할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는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개

독교”라고, 목사는 “먹사”라고 지탄받는 이 현실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더 이상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캠퍼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가 마음을 찢을 때가 많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복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여 제한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현실은 암담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회개하고 반성하며, 구령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잣대로 제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능력을 '재현'할 '책임'이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고 들은 것이 있기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증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은 오늘도 신은 죽었다고, 신은 없다고, 종교는 거짓말 혹은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사랑도 믿음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이션 주님께서 제 갈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서기

연 중앙위원직을 사모함으로 지원했습니다. 제 소망은 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되어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의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에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 삶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다면 주님께서 책임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항상 사랑으로 서기연 지체와 서울대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명현(종교 18)

단기선교 간증글

존필존없

-더 존귀해질 필요도, 존귀해질 수도 없는 나에게



‘존필존없’. ‘나는 더 존귀해질 필요도 없고 더 존귀해질 수도 없다’의 줄임말입니다. 3주간의 탄자니아 전도여행을 통해 팀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전해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땅을 밟는다는 기대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팀원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팀 내에서 스스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사역에서의 은혜보다는 몸의 피곤함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잘 교제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 삽질과 망치질을 잘 하지도 못하며, 개성과 장점이 뚜렷한 팀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팀원들과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해 지쳐 포기하려는 제게 늘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전도여행 초반, 현지 중학교에서 과학캠프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모든 팀원들이 캠프를 하러 갔는데 혼자 남아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피해망상에 젖어 ‘다른 사람들은 친화력도 좋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니까 캠프를 하러 가는데 나는 사역에 필요하지 않아서 여기에 혼자 남았구나’ 하며 청승맞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이 그리우면 꺼내보기 위해 챙겨온 두 통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평소 부러워하던 친구가 써놓은 ‘부럽다’는 말과, 너무나 사랑하는 언니가 써준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편지에 적힌 말들을 통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를 부러워하며,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뒤 또다시 방향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팀원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친해지기를 포기하고 ‘관찰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서로 잘 맞고 즐겁게 잘 지내는 팀원들이 부러웠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단기로 결심했을 때, 간사님이 “나랑 놀자”며 다가오셨고 “네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찢어놓을 만큼 너에게 강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간사님의 위로와 조언 덕에 그 날 밤 팀원들에게 마음을 열어 보여줄 수 있었고, 그런 모난 모습조차 응원하며 손 잡아주고 안아주는 팀원들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스스로와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고되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다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며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밤하늘과 노을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때로는 ‘가면을 쓰지 않은 너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또 때로는 갑자기 다가와서 안아주거나 끊임없이 ‘존필존없’을 외치며 웃는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존필존없’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랑과 힘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탄자니아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아직은 고되지만, 탄자니아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서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아끼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최규연(독어교육 17)

《진리는 나의 빛》 독자 기고란

서울대학교 학부생 혹은 학내 구성원 분들의 간증 혹은 신앙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의 글 기고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글/기독교 단체 소개 및 간증 모두 괜찮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읽는 분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줄 독자 분들의 글을 기대합니다.

문의: 이은혜 학생기자(010-2208-3684, leh1288@snu.ac.kr)

대학원생 특별기사

삶으로 공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의미와 기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조지혜 자매입니다. 2001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벌써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앙과 학문”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서울대학교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을 안겨준 복된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처음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저를 가장 크게 압도하였던 감정은 바로 ‘허무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위해 애써온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몇 년 동안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했고, 모든 수업의 시험을 치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힘들고 무력해졌을 때, 전공의 친구들과 선배들은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찬양과 말씀을 나눠주고, 정성스러운 편지와 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성경공부로 인도해준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었던 친구들의 사랑의 수고 덕분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경험한 어둠의 시간, 그리고 기꺼이 그 어둠 가운데 찾아와 주었던 진심어린 친구들은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의 참 소망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저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학부 마지막 학기에는 그동안 방황했던 시간과 고민을 담아 완성한 레포트가 서울대학교 최

우수 레포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된 저를 기쁨으로 격려해주시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2006년도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큰 의미를 주고 있는 신앙이 학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은 정말 가능한 것인지 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한편으로 제 안에서는 신앙과 학문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느끼며 난독증까지 겪게 되었고,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조차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과 육아로 이어지는 생활을 하면서 몇 년간 캠퍼스를 떠나 평범한 주부로 지냈고, 그 긴 공백의 시간들을 통해 공부하는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기에 저는 한 지역 교회에서 제 삶의 소중한 친구들로 남겨 될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몇 년간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하고 아픈 시간을 지나면서, 심령이 매우 갈급하고 가난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보다 더 영혼의 갈급함과 가난함을 느끼고 있던 집사님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집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통로이자 진실한 친구가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유년시절부터 집사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깊은 상처, 특히 부모님들과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처들을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누고 위로하면서, 우리들의 만남에는 성령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집사님들과 함께 나는 삶의 이야기를 논문으로 표현해 보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논문이라고요?’ 저는 다른 책도 아닌 논문으로 신앙 이야기를 표현해보자는 하나님의 제안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며, 마치 사자가 그랬던 것처럼 피식 웃어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2015년 봄, 저는 무작정 다시 전공 점심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마치 늘 함께 했던 제자처럼 “지혜야, 밥 먹었니?”

하고 물으시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7년만에 저는 캠퍼스에 돌아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면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공백기를 지나면서 저는 글을 쓰는 법을 많이 잊어버렸고, 텅스 점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매달 시험을 치르러 다녔습니다. 그 사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한이 지나버려, 다시 한 학기 수업을 듣고 3년의 연장 기회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수업을 통해 ‘현상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이를 논문의 중심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또한 석사 전공에서 훈련받았던 질적 연구는 집사님들과 함께 나눈 신앙 이야기를 그분들의 생애 안에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논문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심사 날, 심사위원 교수님들의 첫마디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저는 석사과정을 시작한지 13년만에 믿음의 졸업을 하고, 19학번 박사과정 새내기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 공부의 여정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그 성품을 삶과 학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논문의 길이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제가 너무 무모한 시도를 한 것 같아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담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캠퍼스에서 함께 예배하는 후배님들과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통해 격려해주시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학부 시절,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알게 해 준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빛을 진 것처럼, 신앙과 학문을 표현하고자 했던 저의 공부도 기꺼이 논문의 참여자가 되어준 집사님들과 캠퍼스 예배자들의 응원에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문을 통해 진리의 빛을 밝혀가기를 원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조지혜(교육학과 박사 19)

연락처(이메일): j2wisdom@naver.com

대학원생 특별기사

공학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의 주(主)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교에서 학문(學問)에 정진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natural science)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부여된 자연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며, 인문학(humanities) 및 사회과학

(social science)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인 인간 본연의 모습 및 사회의 규범과 조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내재된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학문적 신실함을 일깨워주며, 서울대학교의 라틴어 모토가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는 점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UNESCO Publishing이 2010년에 발간한 ‘UNESCO Report-Engineering: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에 따르면, 공학(engineering)이란 용어는 14세기에 군용 엔진(engine)에서 유래하였으며, 엔진이라는 용어는 발명의 재주 및 영리함을 뜻하는 라틴어 잉게니움(Ingenium)에서 유래하였다. 공학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장치(device)를 고안(창조)함으로써 인간에게 진보된 사회를 제공하고 고군분투해온 역사의 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지기적 대리자로 세우셨다. 따라서 ‘무(無)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들을 이용해서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정통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

서 온 인류에게 선물하신 일반 은총(common grace)을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상하고 순수한 사회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파했다. 즉, 그리스도인이 공학을 한다는 것은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외하면서, 학문을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는 헬라 영지주의적 성(聖)속(俗) 이원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에게 위임하신 세상을 인간의 창조성으로 채우며 공공의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출 3:14)”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공학에 투영하는 우리의 가치가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바벨탑의 실체는 엄청난 경제력과 발달된 기술 문명으로 하여금 인간의 성취와 업적에 도취하게 만드는 죄된 본성이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클라우드 슈밥 회장(Klaus Schwab, 1938~)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골자로 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초(超)연결·초(超)지능·초(超)실감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고도화된 미래사회로의 격변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는 빠른 속도에 미쳐 대응하지 못하고 인간 소외를 경험하며 가치 부재 및 혼돈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유발 하라리 교수(Yuval Noah Harari, 1976~)는 그의 저서인 호모 데우스(Homo Deus)에서 인류가 기근, 역병, 전쟁 등을 극복해오면서 불멸, 행복, 신(神)성을 지향하는 인간을 꿈꾸게 됐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철저한 무신론적 미래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요 3:16),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역사 속에서 참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빌 2:6-7)과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 사이에 너무나 큰 역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공학 영역에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야 한다.

미국 풀러신학교 전 총장 리처드 마우 교수(Richard J. Mouw, 1940~)가 저술한 책 제목인 ‘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나신다. 저명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A Letter of Thanks to Mozart’에서 “나는 천사들이 하나

님의 존전(尊前)에서 시중들 때에 바흐(Bach)만을 연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바는 천사들이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Mozart)를 연주한다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반 계시(general revelation)는 자연(하나님의 질서), 인간(하나님의 형상), 역사(하나님의 섭리) 등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의 학문 탐구가 단순히 지적 만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성품, 뜻과 생각이 드러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공학을 창조 원형의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공학도의 역할인 것이다. 이는 미국 칼빈주의 신학자 안토니 후크머(Anthony A. Hoekema, 1913~1988)가 ‘The Bible and the Future’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인간의 문화적 산물들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화(질적 갱신)되어 우주적인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도 맞닿아 있다.

끝으로, 중국의 정치가이자 의사였던 쑨원(孫文)이 남겼던 ‘소의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고(小醫治病), 중의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며(中醫治人), 대의는 사회와 국가를 치료한다(大醫治國).’는 말에 의(醫; medicine) 대신 공(工; engineering)을 대입하는 것으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규명한 과학적인 원리를 토대로 세워진 지식 체계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과 배려를 통해 전해질 때,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봉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위대한 공학도로서의 영광을 누린 것이다. 사전적으로 ‘나누다’의 뜻은 영어로 ‘divide’와 ‘share’를 모두 지니고 있다. 우리의 공학 지식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나누고(divide) 기쁨과 희망을 함께 공유(share)하며, 수많은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 나가기로 도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등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마 5:45). 공학은 하나님의 창조(과학)와 하나님의 형상(인문/사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며,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의 제품 개발을 통하여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의 열정과 지식을 헌신함으로써, 이 시대를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온전한 공학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윤헌준(기계항공공학 박사 졸업)

대학원생 특별기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17학번 박사과정생 권슬기입니다. 학부 때 음대에서 비올라를 전공하여 연주에 집중하다가 대학원을 음악교육 전공으로 진학하여 현재 계속 학업 중에 있습니다. 저의 긴가긴 공부의 여정 가운데 제가 겪은 고민들과 그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메시

지가 이 글을 읽는 한 영혼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길 바라며 조심스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부터 대학원 과정을 걷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길은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다듬으시는 필요한 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욘기 23장 10절 말씀)

대학원생의 생활을 오래 겪다보면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이 사회에서 참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하기엔 (사알짝) 나이가 많은 감이 있고, 사회인이라고 하기엔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 매우 어색합니다. 특히, 박사과정에 진학한 후 저는 석사과정에 이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이 시간을 학업으로 불태워야하는 상황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조교 활동, 예기치 못한 잦은 회의, 학회 간사 업무와 같은 학술관련의 일 외에도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및 악기 지도, 연주 봉사활동 등의 교외 활동으로 개인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던 터라 저의 마음은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분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 예배를 지키는 마음과 2)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저

의 일정이 뻘뻘이 쌓일수록 주일예배든, 새벽예배든, 철야예배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더욱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부여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매우 컸습니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제 분주한 맘은 평안한 맘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기쁘게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어져 제가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미래를 위한 축복의 투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때는 불투명한 미래가 ‘내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주님을 붙잡게 하는 값진 방패이며 검’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달란트인 비올라를 통해 필요한 곳에서 재능기부하는데 힘쓰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악기를 가르쳐야 하나, 연주를 해야 하나’란 마음에 속상하고 눈물을 쏟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을 하면 그 이후에 부여하시는 기쁨과 축복의 선물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저에게 바쁜 일상에 대한 평안한 쉼이 되는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거나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ideation)를 돕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달란트가 현재 본인의 직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평소 일상에서 썩혀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용을 통해 부여하실 은혜가 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때로 ‘대학원생의 삶은 불모의 밭을 기경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펼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기다림으로 계속 밭을 기경하다보면, 주님께서 ‘불모의 밭’을 ‘비옥한 밭’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학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하실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언제나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슬기(음악교육 박사 17)

대학원생 특별기사

박사과정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올해 겨울 수리과학부 석박통합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김성환입니다. 학부 5년, 대학원 6년, 도합 11년을 관악에서 보내니, 어느덧 여기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진리는 나의 빛>으로부터 글 요청을 받고 무엇을 나눌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간의 대학원 생활을 정리하며 생각나는 점들을 몇

가지 간추려 전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저는 연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어서 들어왔지만, 연구를 하기에는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머리가 비상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첫 연구주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께로부터 첫 연구주제를 받았을 때 저는 대학원에 들어온 지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고, 논문자격시험도 통과하기 전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배운 것이라야 학부 수준의 전공지식이 전부였죠. 오히려 그래서인지 받은 주제의 학문적 가치나 난이도를 따지지 않고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첫 연구주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자 여러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석박통합과정 6년 중 5년을 재정적 부담 없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연구가 잘 진행되어가도 걱정과 불안은 끊이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구비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는 선정만 되어도 더할 나위 없이 좋

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정이 되니 ‘논문 3편 정도는 있어야 실력이 인정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 3편을 완성하니 ‘5편은 있어야지’, 5편을 완성하니 ‘더 권위 있는 학술지에 출판되어야 하지 않을까, 몇 편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새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연구를 하다보면 어려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제풀에 지치게 되더군요.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 모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현재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박사과정동안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결혼 후 신혼까지만 해도 저는 연구밖에 잘 모르고, 논문만 잘 나오면 주변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아랑곳 하지 않고 즐겨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제 품에 처음 안기면서 인생에 연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중전에는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선배 연구자들을 볼 때, 왜 그 정도 삶에 만족하는지 항상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나니,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되고, 저의 앞날이 그렇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 늘 나와 함께 해줄 가족이 있다는 것과 견줄 만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제 인생에서 연구가 자리할 위치도 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수단 말입니다.

지난 6년의 박사과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 연구주제를 받은 것도, 연구비지원사업에 선정된 것도, 논문의 여러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도 저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저의 힘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김성환(수리과학 석박사통합 졸업)

기교협 소개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회의의 사역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회의(기교협)는 1994년 가을에 시작된 금요교수기도회를 모체로 시작되었다. 기독교수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학생들에 대한 영적 부담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개인 전도와 성경공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기도회에 모일 때마다 서울대에 전도의 문이 열리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였다.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종웅 목사님이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으로 전도하시며 기독교수들이 연합하여 학생들의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셨다. 이를 위해 이 목사님은 기독교수 명단을 작성하여 교수 연구실을 두드리며 기독교수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하였고 이것이 기교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대학에서 전도가 어렵고 복음 사역이 어렵다고 한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대학은 안정된 직장에 가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는 곳이 됨으로 복음 안에서 소명을 찾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더 갖기 힘들게 되었다. 복음 사역을 위한 영적 환경이 쉽지 않음을 느낀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서울대에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고 주님의 청년들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교협의 사역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과기독인모임 참여와 협력

과기독인모임은 열심 있는 학생 리더가 있을 때는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임을 이어가기가 힘든 경우를 보게 된다. 기독교수가 지도교수로 든 든히 받쳐 주는 경우에는 비교적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음을 본다. 기독교수들은 과기독인모임에 참여하여 말씀을 전하거나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과기독인모임에서는 같은 전공을 공부하며 함께 예배하며 격려하고, 장차 같은 분야에서 평생 믿음의 동역자로 우정을 키울 수 있다. 과기독인모임을 통하여 믿음이 어린 지체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교회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복음전도와 제자양육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장한 사람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기독교수들은 학생들과 학업, 진로 또는 인생 상담을 하며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단대 연합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전도모임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단대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복음전도가 더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기교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독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제자화리더십훈련(이성기 선교사, 한국 CCC 교수선교부)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45명의 교수들이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을 받은 교수들은 속한 과 또는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이 훈련을 통해 기독교수들이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3. 대학교회와 수요열린예배

기독교수들이 전도한 학생들과 주일에도 학교에 나오거나 지역교회가 어색한 신앙 새내기들을 위한 예배의 장으로 1999년 12월 수요채플로 출발한 서울대학교회는 2003년에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어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예배와 중국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영적으로 갈급한 지체들을 위하여 수요열린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다. 기독교대학원생은 영적 보살핌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수요열린예배를 통해 기독교대학원생들이 회복되고 학원복음화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있다.

4. 서울대 연합사역과 선교단체 협력

기교협은 서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이를 위해 학내 기독교공동체들의 연합사역을 돕고 일으키는 데에 사역의 중점을 두고 있다. 믿

음의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특히 학내 선교단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5. 전문영역에서의 선교적 적용

우리는 기독교수들이 각자의 전문영역과 관련된 해외 적정기술 봉사활동이나 강의 봉사 등으로 직간접적인 선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다.

6. 대학의 영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현재 캠퍼스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반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다. 또 복음과 성경적 진리를 자유롭게 외칠 수 없게 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캠퍼스는 이 세대의 반기독교적 물결에 휩쓸리기 쉽다. 기독교수들은 세속적 가치관이 제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내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내의 여러 기독교단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에는 40여 년 전에 서울대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진 대학총교회의 기도와 재정적 도움과 함께 학부기독인연합, 기독교대학원생모임, 과/단대기독인모임, 선교단체, 교직원신우회, 서울대학교회, 기독교총동문회, 학부모기도회, 기독교수협회의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연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연합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있다. 특히 올해 연합집회들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선배 교수님들의 헌신과 믿음의 터 위에서 영적 바톤을 이어받아 캠퍼스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 나아가 학내 복음 단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고 각 공동체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열매 맺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여기에서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참된 영적 변화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캠퍼스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홍종인 교수(화학부)

소식

2019년 5월 14일(화)에는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조찬기도회는 학내외 여러 기독교인(교수, 교직원, 동문, 학부모, 대학원생, 학부생 등)과 보직교수 등이 참석하는 자리이며, 참석자는 기독교수 70여 명을 비롯한 140여 명이였다.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예배, 캠퍼스 복음화 활동 현황 소개, 기도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말씀은 김상복 목사님이 전해주셨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다음은 조찬기도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한 기도제목들이다.

<조찬기도회 기도제목>

- 서울대학교 학생 및 복음화를 위해: **장정완** 간사(선교단체간사연합 대표, CMI)
- 총장, 보직교수 및 동문을 위해: **김병문** 교수(화학부)
- 민족화합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정권대** 회장(교직원 신우회)
- 국가와 대통령, 각계 지도자를 위해: **서봉경** 회장(기독교총동문회)
- 남북관계 정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조동준** 교수(정치외교학부)



음기연 소개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음기연이 다시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 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기연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에는 흔쾌히 수락했지만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글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고 나뉘는 것일까. 하지만 또 이렇게 약한 저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

게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저의 삶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한 아이였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겨도 여전히 저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중, 음기연 전 대표이셨던 권희진 언니를 만나게 하였고, 음기연에 대한 소식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희진 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음대에 있는 영혼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음기연을 마음에 품었던 것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저의 욕심이었기에 금방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기연이라는 공동체는 저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의 훈련을 통해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시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독교 동아리를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도 차근차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잃어버린 양 한마리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연신앙모티 준비팀으로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셨고, 단대기독인연합에서 섬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결국에는 저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음기연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한 것이라고는 만남을 허락하신 음대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음기연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였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고, 주님의 마음을 심고 계셨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시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고,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도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기연이 다시 세워지고 난 후, 서기연을 통해 만나게 하신 수많은 분들의 나눔 속에서 긴 시간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음기연을 위해 언제나 눈물로 기도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그 때를 소망하고 기다려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기연이 품고 있는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팡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수많은 연주를 듣고 보고 준비하고 또 한 연주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음악이란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중들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인인 연주자들이 자신의 높아짐을 바라며 연습하고 연주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그분의 사랑을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순 없지만, 음악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마음과 시간을 통해 갈급한 영혼들, 주님께서 찾고 계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음기연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통로로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서울대 캠퍼스로 부름 받은 주님의 자녀분들을 위해 저희 음기연도 언제나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소영(기악 16)

자전기연 소개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시 127:1)"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기독인 모임 Shelter(자전기연) 대표 홍영서라고 합니다. 이번 <진리는 나의 빛>에 글을 기고하게 되면서 어떤 글을 쓰길 바라실까 기도하는데, 자전기연이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자랑할 것이 정말 주님밖에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전기연 대표를 맡게 되었을 때의 공동체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저희 학부에 기독인 교수님이 계시지 않아 학과 동아리로 등록되지 못했고, 동아리방 또한 없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 메일을 드려 보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자전 특성상 다들 전공이 다르다보니 서로 만날 기회도 적어,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예배에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괜히 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에 잠 못 이룬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고, 아무도 안 올지언정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게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는 건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오직 기도라는 것을 자전기연을 통해 증명해주셨습니다. 지도교수 맡길 거절하셨던 교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동아리로 등록될 수 있게 승인해주셨고, 동아리방이 없어서 캠퍼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저희에게 220동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선뜻 립을 내어주신 사회/사범/공기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 19학번 친구들을 저희 모임으로 인도해주셨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모든 것을 세우고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자전기연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니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

전기연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어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었으니 말씀하실 수도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곳이 되 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기도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주되신 곳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뿌린 씨에서 짝이 돋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보이지 않지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주인은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전기연 모임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합니다. 저희 자전기연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점심 12:15 ~ 2시 사이에 220동 3층 제 1동아리방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 모임마다 5-8명의 자유전공학부 지체들이 함께 모여 개인 기도제목, 서울대 캠퍼스와 한국교회 및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이니 언제든지 환영이니 언제든지 대표 홍영서(010-6800-2798)로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홍영서(자유전공 16)

2019-1학기 캠퍼스 이모저모

1학기 개강예배(3/11)



▲ 지난 3월 11일, 개강예배가 드려지는 모습



▲ 목사님의 말씀 후, 합심하여 기도하는 서기연 지체들



▲ 예배 후, 예술계식당에서 진행된 식교제

기독교수와 신입생의 만남(4/5)



▲ 자약수미(자연대/약대/수의대/미대) 교수님 특송



▲ 인사사임(인문대/사범대/사회대/음대) 단체사진



▲ 공생농자(공대/생활대/농생대/자연대) 교수님 말씀

대학원 신입생과 기독교수의 만남(4/12)



▲ 행사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불어교육과 박동열 교수님



▲ 말씀 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는 모습



▲ '대학원신입생과 기독교수의 만남' 단체사진

조찬기도회(5/14)



▲ 예배 후 이루어진 박형대 목사님(대학총교회)의 축도



▲ 조찬기도회 인사말씀을 하신 오세정총장님



▲ 서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하는 모습